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4월 5일 (제 135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신앙의 부활

베드로는 무너진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였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다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마찬가지다. 그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 되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피해 숨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 넘어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신앙의 부활이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신앙이 식어버릴 때가 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말씀은 멀어지며, 마음은 점점 무뎈진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이미 무덤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부활의 아침, 무덤은 닫혀 있지 않았다. 돌 문은 옮겨졌고, 생명이 죽음을 밀어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다. 아무리 굳게 닫힌 신앙이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11).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이다.

혹시 지금 신앙이 무너져 있는가?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렸는가? 그렇다면 부활절은 바로 당신을 위한 날이다.

신앙의 부활은 거창한 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을 펼치는 것, 다시 주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죽어 있던 믿음이 살아난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다시 살리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보여지듯이, 전쟁은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되곤 한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 역시 예측불가의 변수들이 난무한다. 목사님이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다.

이번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 목회자 세미나는 원래 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광고했고, 이를 위해 합심기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국이 되어있는 데다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세미나는 결국 취소되고, 세미나를 주관한 해리건(Juan

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황당하기 지 없었다. 목사님은 숙소에 도착해서서 상담을 늦게까지 하시느라 지쳐 쉬고 계셨고, 이현숙 선교사와 함께 로비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의 계획인즉슨 3명의 강사가 한 타임씩 맡는 것이 아니고, 한 타임을 세 강사가 시간을 쪼개 나눠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40분에서 45분 정도가 주어질 것이란다. 매 파트마다 참석자가 변동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다 듣게 해주려는 계획이란다. 우리 즉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목사님은 최소한 2시간은 필요하다. 통역을 거쳐야 하니 40분이면 20분 강의하란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자 5분, 10분 더 내드릴 테니 양해

이 있습니다.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빙한 강사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순간 이후 모든 순서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스라엘(Israel)에서 나훔(Nahum) 목사가 강의를 중단시켰을 때 마이크를 던지고 나오셨던 목사님으로서, 예전 같으면 다 그만두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곳에 모이는 칠팔백여 명의 목회자들 중에 7명만 변화되어도 중남미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며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하셨다. 목사님께서 이런 허심탄회한 자세로 말씀하시자 그는 해리건 목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고, 이러한 정황을 전해 들은



2026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Carlos Harrigan) 목사의 교회(Casa de Dios)로 자리를 옮겨 소규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캔자스시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의 집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나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분위기 등이 뭔가 개운치 않았다. 마치 전조증상처럼 말이다. 미리부터 세미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해리건 목사는 당초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미안함 때문이지 몰라도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부교역자가 숙소로 찾아와 자신들의 계획

해 달란다. 지구 반대편에서 먼 거리를 날아온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다. 계속 이야기가 공전하는 듯하여 결국 목사님께 내려오시라 말씀드렸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단 한 번도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한다는 목사님 말씀 그대로다.

목사님은 역시 노련하셨다. “나는 초청 받은 강사로서 주최 측이 정한 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을 하래도 따를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해리건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등골이 서늘했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다. 멀리 아칸소(Arkansas)주에서 찾아온 박동진 목사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정말 그가 뿌린 대로 이번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는 다시 한번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목사님은 첫날 첫 시간, 2시간 반에 걸쳐 혼신을 다해 강의하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판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통성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며 떠나갔다



연일 혼신을 다하신 목사님과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



회개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

:: 객원컬럼 ::

부활의 신앙

부활은 겨울의 침묵을 깨고 돌아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약한 잎사귀가 결국 온 산천을 푸르게 덮듯,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소생을 넘어, 절망이 희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이습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바람은 강한 회오리를 몰아쳤지만,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더 짙 쥐었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이 햇살과 같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죽음의 공포와 삶의 무게를 억지로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절망이라는 외투를 벗고 하늘의 평안을 입게 됩니다.

저는 육체의 연약함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부활의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본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암이라는 고난의 폭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이초석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가 살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밟았지만,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입대 한 달 만에 들려온 어머니의 비보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나!”라는 원망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들은 누님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결국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을 남기고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였던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거짓으로 하셨을 리 없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은 제 마음속 혼란과 방향을 잡재우는 강력한 햇살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실재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자 부활의 믿음이었습니 다. 그날 이후 제 가슴에는 부활의 소망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 세우고 부활을 증거하게 만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병마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립니다(마11:4~6)

우리 교단은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교단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모든 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 받는 모든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영국 목사

:: To Be Succeeded ::

깨닫는 것이 복이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량식품은 몸에 좋지 않으니 군것질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던 나는 그날로 군것질을 끊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가르침이나 충고, 조언이 깨달아지고 심비에 박히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떠할까? 성경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인 범죄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았지만, 사무엘의 책망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첫닭 우는 소리에 깨달아 통곡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주님의 충성된 수제자로 살았던 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팔아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 그는 이

후 깨닫고 변화되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선교 동역자가 되어 우리가 즐겨 읽는 마가복음과 베드로전후서를 대필하기까지 귀한 일꾼이 되었지만, 한때는 주님의 일꾼이었으나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는 끝내 주님과 사도 바울을 떠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버리고 말았다(딤후4:10).

그뿐인가! 고귀한 왕비의 신분이었음에도 사촌 모르드개의 말 한마디에 깨달아 3일 금식을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며 왕앞에 나아가 전 유다를 구원한 에스터, 또한 나라의 이름있는 장군이었지만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깨닫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몸을 담가고 질적인 문둥병을 고침 받은 나아만 장군, 이들의 간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으며, 또한 그 말을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반드시 전대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깨닫는 것이 복이다. 깨달을 때 구원의 역사와 치료가 일어나고, 깨달아야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시119:34).

이국진 사모

:: 교단소식 ::

젊은이를 위한 집회

지난 3월 28일, 서울 청년부에서는 이 시대 목사님을 초청하여 '1일 전도 집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노랑진 일대를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진행하였고, SNS와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도에 매진했다. 그 결과 교육관을 가득 메운 새가족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도의 열기가 4월 11일에 있을 '청소년 전도 집회'로 이어져, 다시금 잠자는 젊은 세대를 일깨우고 영적 봉황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목사님은 '작은 힘도 합치면 큰 힘이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며, 우리 신앙은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으며,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함께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전하셨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데 21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하셨다. 각 하나의 부품은 개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많은 작은 부속품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기체를 이루듯,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전4:9), 삼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 신앙을 영적 전투로 비유하며, 이 싸움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청년들이 되어보자!

이경업 생도



:: 소망의 언덕 ::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아빠!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 아빠가 빨리 와서 해결 좀 해줘!”

교육관으로 향하던 길,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자 딸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라면 “너희끼리 잘 해결하렴. 기도회 다녀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달랬을 텐데, 그날은 어쩔 일인지 마음이 강하게 움직여서, 저는 올림픽대로에 진입하기 직전 핸들을 돌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들은 여럿 있었지만, 막내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어디 있지?”라고 물으니 막내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가 뛰어갔다 고만 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아이들을 차에 태워 주변을 살살이 뒤졌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먼저 내려준 뒤, 차를 돌려 다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체가 툭쭈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려서 확인하니, 운전자 쪽 바퀴가 아예 빠져버린 것입니다. 20년 넘게 운전하며 늘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왔던 터라, 바퀴가 흔들

리는 전조 증상조차 없이 통째로 빠져버린 이 사건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깊은 전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제가 딸아이의 간곡한 전화를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대로 올림픽대로에 올라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면요? 하나님은 딸아이를 통해 제 발걸음을 돌리게 하였고, 안전한 장소인 아파트 단지 안 서행 구간에서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사역지로 향하던 저의 급한 마음보다, 당신 자녀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남매들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서 학원을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확인하고, 사고도 수습하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때, 제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때론 눈에 보이게, 때론 보이지 않게 저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획이 틀어지고 예기치 못한 소란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긴급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현승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신앙에세이 ::

삶의 온도, 믿음의 온도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마27:57~58).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난의 현장에 열두 제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부자라고,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섬김과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제자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어에도, 얼굴에도, 삶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하고,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도움과 섬김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항상 사랑과 찬양, 위로와 감사, 축복이 넘칩니다. 이 믿음의 온도는 다른 이에게 전파되며, 따뜻한 온도는 생명을 부화합니다. 살립니다. 낳습

니다. 따뜻하게 삶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믿음의 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외, 국내 성지순례를 갑니다. 모든 성지는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시련의 현장이 섬김과 헌신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동네, 내 직장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내가 있는 곳이 성지가 되게 하십시오. 생명의 부화가 있게 하십시오. 미고사축(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우리의 시간대는 다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은 보통 이해의 차이에서 생겨난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다. 그러한 갈등은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접고 상대의 뜻에 따르거나, 상대의 생각을 완전히 포용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온전히 이해했을 때 해소된다.

세상 말로 중2병이란 단어가 있다. 중학교 2학년 전후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는 과한 자의식, 과장된 자아 표현을 뜻하는 말로, 허세나 무개념처럼 보이지만 정체성 탐색과 감정 기복이 큰 자연스러운 발달 양상으로 설명된다고 한다.

마침, 내게도 중학교 2학년 자식이 있다. 대화하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로 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때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내 주관도 옳다고만 생각하는 시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을 늘 나중에야 깨닫는다. 아마 내 아버지도 나와 대화에서 그러한 것을 느끼실 테지만, 지금의 나로서도 단지 아버지가 날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엔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 다 같은 시간대를 거쳐 가지만, 다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있진 않다.

말과 행동 양식, 인격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새 생명에서, 연약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시간대도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판단이 아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내가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순간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시간대가 언제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박찬영 집사

따사한 양지쪽
무덤의 할미꽃
바시시 고개드니
중후한 여인네 옷맵시 같구나
지는 꽃 서러워 울던 그날도
따사한 봄기운
부활의 꽃 피니
덧없다 한탄한 할미꽃
진자주꽃 피며
청춘을 노래한 할미꽃 보게나

할미꽃을 보게나

-봉우



인천 청소년 전도집회

4월 11일(토) 오후 2시,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

:: 주님을 향한 노래 ::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자

청년부 시절, 다른 교회에 다니던 형을 수련회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어땠냐고 물으니, '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메시지와 찬양이 너무 좋았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할 수 있다'고 찬양으로 계속 고백하다 보니 나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안된다는 부정을 한 치도 용납하지 않는 초공정 이야기말로 우리 교단과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다들 '어렵다, 안 된다' 하지만, 그중에도 분명 잘되고 성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이 되어 자극적인 짧은 영상을 끝없이 소비하는 숏폼의 시대에 흐름을 역행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MC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채널의 영상은 평균 러닝타임이 1시간~1시간 30분입니다. 그런데 평균 조회수가 300만~500만 회나 됩니다. 30초짜리 영상도 끝까지 못 보는 세

대들이 그 긴 영상은 끝까지 다 보고도 다 음 영상을 기다립니다.

또한 작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10만이 넘으며, 7곳 중 1곳이 폐업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은 줄이 끊이지 않으며 예약조차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절, 모든 운행이 끊겨 회사 운영에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이 비행기의 좌석을 다 떼버리고 화물을 운송하여 흑자를 냈다는 예화는 설교시간에 우리 모두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온갖 이단 시비와 핍박과 모함을 받은 총회장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둘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더니 해외로 눈을 돌려 지금은 75개국을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공한 농사꾼은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목사님의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언

급한 사례들도 모두 안되는 이유를 찾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선례입니다. 악하고 무책임한 게으른 자들이아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며 핑계를 대지만(잠26:13), 우리는 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부지런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9:23)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각자가 계획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절대 거저 이루어지는 목표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분명 올 것입니다. 주변에서 힘들 거라고, 안될 거라고 만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정에 동조하지 말고, 멈춰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들어 우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호민 전도사

춘계산상집회

4월 27일(월)~30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